

濟州島 傳統文化 藝術의 振興*

玄 容 駿(濟州大)

1. 文化의 變化와 傳統文化

濟州島 傳統文化 藝術 振興의 時急性은 民族文化 振興의 次元에서나 제주도 觀光 開發의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한 과제이다.

傳統文化 振興을 논의하는 데는 문화변화의 기본적인 이론의 기반 위에서 사고를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文化를 生活樣式의 전체라고 정의할 때, 그 문화는 한시도 쉬지 않고 變化를 거듭하는 것임은 이미 상식이 되어 있다. 그 變化는 內的 要因에 의한 變化와 外的 要因에 의한 變化가 있다. 前者는 보다 편리하고 잘 살기 위하여 그 문화 자체 안에서 發見과 發明에 의하여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고, 後者는 外來文化의 接觸과 受容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要因에 의해서 文化는 쉬지 않고 變化를 거듭하면서도 아무런 方向없이 제멋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文化에 保守主義가 지속되는 한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서 전통문화의 본질을 존속시키는 한도 내에서 變化되고 再構造, 統合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만일 政治家, 言論家, 教育者 등 文化指導者들이 傳統的 價値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개혁하려 하여 外來文化 受容을 強要할 때는, 民衆은 이에 휩쓸려 價値 基準을 잃고 傳統 文化의 本質마저 깎그리 變化시켜 異質文化로 變化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濟州島의 傳統文化라 일컫고 있는 것은 논자에 따라 多少 다를 수 있지만, 대개는 民俗學的 調查에서 얻을 수 있었던 1900년대 초기의 생활양식 정도의 것이라 보아도 좋다. 이 시기의 문화는 그 후 서서히 변화를 해 왔지만, 6·25전쟁 이전까지는 거의 변화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유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후 本土人과의 잦은 접촉, 교통, 매스컴의 발달, 거기에다 新生活運動, 새마을운동, 관광개발 등을 거치면서 급격한 변화상을 보였다. 이들 변화는 제주도민의 자체적 가치의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행정, 교육, 언론 등 문화지도자의 의지에 의한 試行錯誤의인 변화임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오늘날의 傳統文化의 양상은 어떠한가? 雜穀栽培의 農業形態

* 본고는 “濟州島의 未來像을 위한 오늘의 課題”란 주제의 심포지움(1990.11.9~10, 제주대학교)에서 기초강연으로 발표된 것임.

와 기술은 감귤산업으로 인해 거의 사라지고 탕전, 양태, 갓모자 등 수공예도 없애졌으며, 물허벅을 비롯한 운반방식이나 交通方式도 완전 달라졌다. 이에 따라 갈옷의 衣生活, 籾穀主食의 食生活, 안거리, 박거리의 父子別居의 住生活方式도 거의 달라졌다. 民謠의 섬이라 일컬어질 정도이지만 勞動謠도 행상소리(輓歌)를 제외하면 모두 기능을 잃었고, 그렇게 淫祀가 많다고 하던 巫俗의 당들도 서서히 줄어들어 당굿을 하는 데는 몇 군데 없고, 당마다 전승되던 당본풀이들도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다. 傳統的 婚禮式도 禮式場으로 바뀌어 볼 수 없게 되었고, 傳統的 葬禮式도 거의 변화되고 있다. 연자매, 방아도 완전 없어지고, 걸궁이나 민속놀이를 하는 마을도 거의 없어져 漢學文化祭의 출연 종목으로 되살리는 형편이다.

이렇게 변화 소멸되어갈 때 앞으로 30여년만 지나면 제주의 傳統文化 藝術이 어찌 되어 갈 것인가 생각하면 실로 걱정이 아니될 수 없다. 그런데도 言必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특이한 민속으로 관광개발을 한다. 섬 전체가 民俗博物館이다 云云하니 과연 그럴싸한 말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서 제주도 傳統文化 藝術의 振興方案 摸索은 시급을 요하는 과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2. 傳統文化 藝術의 保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는 쉬지 않고 變化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정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傳統文化의 本質을 잃지 않고 變化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傳統文化 藝術을 保存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하고, 다음에 그것을 繼承, 發展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하, 이에 대한 愚見을 略述하려 한다.

먼저, 傳統文化 藝術의 保存 問題로,

첫째, 傳統文化 藝術의 調查研究 및 그 保護의 內實化이다.

現在 傳統文化 藝術의 調查研究는 民謠, 巫歌, 굿類를 중심으로 자료 조사가 꽤 진척되어 있으나 그 분석 연구는 아직 초보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조사 연구는 文學的, 민속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예술적 측면의 조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형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民俗音樂으로서의 探譜研究, 巫舞의 춤사위 採錄이나 研究 등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無形文化財의 機能保有者는 거의 老齡이어서 시기를 놓치면 영영 사라져 버릴 위기에 있다. 하루속히 대대적인 調查研究 事業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사연구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保存의 重要性이 인정되는 것은 無形文化財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현재 無形文化財의 지정상황을 보면 國家重要 無形文化財에 갓인, 탕전장, 제주칠머리당굿, 제주민요가 있고, 道無形文化財에 海女노래, 영감놀이, 松堂里 마을제, 納邑里 마을제, 德修里 불미공예, 정당벌립장,

방앗돌 굴리는 노래, 열치후리는 노래가 있다. 이 12건의 無形文化財 指定으로는 제주도 전통문화예술의 윤곽도 보존된다고 할 수 없다. 傳統文化 藝術의 세세한 것을 조사 발굴하여 無形文化財로의 指定을 擴充해 나가야 한다.

無形文化財는 時間藝術이기 때문에 時間에 따른 예술성의 전개를 낱알이 반복하여 보고 들을 수 있어야 그 보존과 계승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정된 無形文化財는 그 준비과정에서부터 演行的 끝까지 영화나 비디오로 촬영 보존하고, 그 歌詞의 錄音, 轉寫, 記錄 및 그 가락과 舞踊의 採譜 保存을 통하여 後繼者들이 보고 들어 계승 습득 하도록 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無形文化財 및 傳授生, 保有團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생계에 걱정없이 그 기능을 傳授, 教育하고 계승토록 해 주어야 하며 無形文化財 傳授會館을 건립하는 등 傳授環境을 조성하여 주어 전수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그 대신 公關行事를 活性化하고, 원형 보존 여부를 반성 평가하는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 反省과 評價를 되풀이함으로써 그 原形이 變質되지 않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傳統藝術의 教育 및 普及 傳承이다.

無形文化財를 아무리 많이 지정 보호하고 전수생에게 전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소년에게 교육 전승되지 않고 일반 도민에게 보급 전승되지 않으면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의 의미가 없다.

현재, 제주도의 교육에 있어 제주도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三無精神 교육을 매우 중시하고 있지만, 이 정신의 예술적 소산이 제주도 전통예술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教材 開發이 전연 되어 있지 않고, 교사들의 전문지식 결여 때문이라 본다. 따라서, 각급학교용 전통예술 교재, 음반, 영상자료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시급히 제작 보급하고, 각급학교 예능 교사 재교육 기회에 제주도 전통예술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육 현장에서 제주도의 전통예술을 교육 보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반, 영상자료 등을 제작하여 일반에게 보급함으로써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특히 도내 방송사와 연계하여 종로별로 알찬 작품을 제작 방영하여 그 예술성을 인식토록 함은 중요하다 하겠다.

셋째, 마을별 特性 傳統藝術 運動의 展開다.

官의 次元에서 無形文化財 보호시책을 아무리 잘 펴 나간다고 해도 도민이 호응하여 이를 보존 계승하려는 의식이 없으면 실제적인 전통문화 예술진흥은 어렵다. 따라서 전도민의 전통문화 예술 보존·계승 운동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마을마다 특성 전통예술을 선정하여 키워 나가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녀노래는 어느 마을, 발 밟는 노래는 어느 마을, 열치후리기는 어느 마을 식으로 선정하고, 마을마다 축제 기간을 정하여 해마다 공연하며 다듬어 나가면 훌륭한 전통예술로 정립되어 갈 것이다. 이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行事費 지원이 필요

하다. 만일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마을과 관광업체의 결연으로, 한 관광업체가 한 마을의 특성 전통 예술을 맡아 키우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實利있는 일이라 보아진다.

넷째, 민속박물관의 확충이다.

현재의 제주도 민속 자연사 박물관을 濟州博物館으로 개칭하여 국립으로 이관하고 考古歷史部와 民俗部로 그 편제를 나누어 확장하여 自然史部를 濟州自然史博物館으로 독립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3. 傳統文化 藝術의 現代的 繼承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는 일지도 쉬지 않고 변화하는 것이니 保存만을 강조하고 현대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保存은 현대적 계승의 밑거름이 된다. 生活樣式은 급변하여 가는데, 예술만 옛것 그대로 지켜 있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통예술은 현대적 감각에 맞는 再創造 繼承도 요청되는 것이다. 그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전 예술 분야에 걸친다.

이 계승 재창조에 유의할 점은 첫째,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깊은 지식과 숙달된 기능이 선행돼야 하고, 둘째, 현대적 재창조에 있어 전통 문화예술의 본질을 충실히 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소재, 음악의 가락, 춤사위, 연극적 기법, 거기에 담긴 정신 등이 濟州的이라야 한다는 말이다. 자칫 지나쳐서 제주 것도 아니요, 서울 것도 아니고, 西歐 것도 아닌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가 이 방면에서 전문성이 없어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한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 현대적 계승의 방향만을 간단히 제시하는 바이다.

中國正史에서 본 耽羅

金 永 德(中國 延邊大古籍研究所長)

탐라는 주호국, 탐모라국, 탐라, 담라 같은 이름으로 중국정사인 25사에 가끔 나타난다. 본문은 중국정사에서 본 탐라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개하려 한다. 필자가 의거한 사료라면 25사에서 외국, 속국, 만이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들이다. 바로 그러한 열전에 탐라에 대한 기제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사로서의 25사에 기술된 사료는 믿을 만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사기(史記)》로부터 《청사고(淸史稿)》에 이르기까지 25사는 실록(實錄)의 전통으로 일관되었